

社說

국민의힘, 이대로 무너지는가

제야당 국민의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절운(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절운 거부'를 고수하자 당내 소장파 의원들뿐 아니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노선 변화를 촉구할 정도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생시킨 죄가 있는 정당이니 국민계 사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등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체면 유지라도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TK(대구·경북)만 제외하고, '폭망'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25명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도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라"며 당대표직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장 대표가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껄떡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당내 비판 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원들을 갈라 치기를 하는 리더십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폐쇄적인 성벽 안에 가두는 자해적 고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의 정치를 통합으로 포장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위선을 멈추라는 경고다.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지지율이 첫 17%까지 추락해 TK서도 민주당과 동률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엠베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

지지율 17%까지 추락해 TK서도 민주당과 동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절연 못한 게 주요 원인 지방선거 후 보수정당 존속할 수 있을 지도 의문

치 등의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23-25일)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인 2월 1주차에 41%였는데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22%에서 5%p 떨어졌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여야의 지지율 격차를 놓고 보면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의 기회로 여기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 듯하다. 그런데도 국민 의힘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늪에 빠져 있으니 딱하기 그 지였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경북지사 단 두 곳만 건지고 다른 15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임법권, 행정권에 이어 이번 지방 권력마저 고스란히 여당에 헌납하려는 듯해 안타깝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절박감이 묻어난다.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통해 온 영남 지역에서도 달랑 '뺨발'만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처럼 민심으로부터 역주행을 거듭하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선 '극우'를 벗어나 온건합리적 길을 걸어야 중도층이 돌아오고, 수권 희망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 대표는 이제라도 한동훈 전 대표 등 반대파를 꺼내길 바란다. 민심이 떠나면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유도 과분할 수 있다. 지방선거 후 보수 정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상식적 견해에 귀를 기울이길 촉구한다.

선거와 요금 사이, 적자가 남았다



데일리 Talk 김선민 정치경제부 기자

에너지요금 인상 논의는 이번이 '진중'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춘다. 그러나 실제 발표 자리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다르다. '사상 최대 적자'. 요금은 정치의 영역에 머물고 적자는 공기업의 재무제표에 쌓인다. 이 구조는 과연 정상일까.

반복되는 우연은 구조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요금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선거가 끝나자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평균 9.7% 인상이 단행됐다. 원가 반영을 위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정책적 판단 속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고 한국전력공사 부채 약 205조 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약 14조 원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졌다. 현재 한전이 하루에 지불하는 이자만 약 120억 원에 달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에는 또 동

결되며 익숙한 풍경을 재연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도시가스 도매를 맡는 곳은 한국가스공사, 광역상수도 책임을 맡는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겹으로 보면 이들 공기업이 요금을 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다. 하지만 실체는 다르다. 공공요금은 물가와 직결되는 정책 변수이고, 인상 여부와 시점은 정부 판단과 분리되기 어렵다. 공기업은 공급자이지만 가격 결정권자는 아니다.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조정단이 상한이 존재한다. 연료비 변동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설계된 장치다. 급등기에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원가와 요금 사이에 간극을 만든다. 가스요금 역시 도매요금 조정이 늦어지며 미수금이 쌓였던 사례가 반복됐고, 수도요금도 장기간 동결 후 한 번에 인상되는 흐름을 보였다. 요금은 정책적 판단을 거쳐 움직이고 비용은 시장 흐름에 따라 변한다.

적자가 누적되면 영향은 재무제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차입확대는 재무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신용등급에도 부담이 된다. 설비 교체와 안전 투자, 신재생전환환경 전환 투자 역시 우선순위에 밀린다. 공

업의 재무 약화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공급 안정성과 직결된다.

물론 공공요금을 쉽게 올리자는 말은 아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생활 필수재다. 요금 인상은 곧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인상 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원가와 괴리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해법일까. 인상을 미룬 시간만큼 조정 폭은 커질 수 있고, 결국 한꺼번에 부담이 돌아올 위험도 있다.

공공요금 결정 구조의 특수성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억제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지만, 책임의 소재를 흐리기도 한다. 요금은 정치의 언어로 설명되고 적자는 공기업의 회계상 숫자로 남는다. 그 숫자가 커질수록 정책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요금도 정치가 말하고 적자는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 이제는 이 익숙한 공식에 질문을 던질 때다. 비용을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나눌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정의 책임 또한 보다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smkim@skyedaily.com

'K독파모' AI 주권 향한 전략과 지속가능한 과제



인공지능세상 권희춘 세계대 인공지능드론센터 교수 (사)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대표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K독파모'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단순한 기술 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 효율화 도구를 넘어 국방·행정·의료·교육 등 국가 핵심 시스템의 의사결정 기반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외산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술 통제권 상실과 데이터 주권 침해라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독파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계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고위험·고비용 영역이다. 국가 주도의 단일 모델 개발이 관 주도의 비효율로 흐를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민간 혁신과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다. 독파모가 민간 기업을 대체하는 '국가 독점 모델'로 인식될 경우, 국내 AI 산업의 창의성과 투자 유인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독파모 정책은 개방형·플랫

폼 중심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구현하기보다, 공공 데이터와 기본 모델, 연산 인프라를 개방해 민간이 산업별·도메인별 특화 모델을 자유롭게 확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신뢰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공공 중심 AI'라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해외 사례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등 주요국 역시 자국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 주도와 민간 혁신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독파모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고립된 모델이 아니라, 국제 협력과 표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독파모는 단순한 '한국형 챗GPT' 개발이 아니다. 이는 한국형 AI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와 신뢰를 축적할 때, 독파모는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디지털 동반자 자리잡을 수 있다. AI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설계와 실행으로 완성된다.

품 중심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구현하기보다, 공공 데이터와 기본 모델, 연산 인프라를 개방해 민간이 산업별·도메인별 특화 모델을 자유롭게 확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신뢰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공공 중심 AI'라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해외 사례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등 주요국 역시 자국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 주도와 민간 혁신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독파모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고립된 모델이 아니라, 국제 협력과 표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독파모는 단순한 '한국형 챗GPT' 개발이 아니다. 이는 한국형 AI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와 신뢰를 축적할 때, 독파모는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디지털 동반자 자리잡을 수 있다. AI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설계와 실행으로 완성된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한 가닥'과 '한가락'(2)

'한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가락'에 대한 의미와 예문을 살펴보자. '한가락'과 관계가 있는 노래의 곡조를 말한다. '자진가락, 셋가락(악곡을 더욱 생기있게 하거나 연주자의 기교를 발휘할 목적으로 화성이나 가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하여 덧붙이는 음, 출가락, 풀가락(본디 가락을 변주하여 타는 가락) 등에 드러난 의미를 이른다.

보통 우리가 '한가락하다'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숨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가락'을 찾아보면 '1. 노래나 소리의 한 곡조, 2. 어떤 방면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재주나 솜씨라고 나타내다.

'한가락'은 '노래나 소리의 곡조를 이르는 말인데, '한가락하다' '한가락뻑다' 등과 같이 쓰인다. '한가락하다'는 속된 말로 '사람이 어떤 방면에 뛰어난 재주나 솜씨가 있다는 뜻이다.

형이 예전에 주먹질로 한가락 했지. 양년에 한가락 안 해 본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젊었을 땐 노래로 한가락 했어. 이와같이 쓴다.

많은 사람들이 '한가락'을 '한 가닥'으로 잘못 쓰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강의 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단어들에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므로 바르게 써야 한다.

중부대한국어학과 명예교수 한국어문화회 회장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작대 주경준 주필 황중택 인쇄인 임재형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7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SkyeDaily featuring a background image of hands holding a small plant. Text includes: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We will plant new hope),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All SkyeDaily staff), and 'www.skyedaily.com'.